

# 목양칼럼

## 첫 단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단추를 꿰 곳이 없고 옷 모양새는 아주 우스워집니다.  
 새해의 첫 단추가 이상하면 올해의 전체도, 그 마지막도 이상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새해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건강? 재물? 학위? 결혼?

“단지 15분”이라는 어느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 박사논문을 제출하여 놓고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찰 결과 그는 15분 후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10분이 남았을 때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왔는데 억만장자인 그의 삼촌이 죽었으므로 와서 재산을 상속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분이 남았을 때에 도착한 것은 박사학위 논문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애인에게서 결혼을 승낙하는 편지도 배달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15분은 다 되어 죽게 되었답니다.

새해에 사람마다 건강, 재물, 학위, 결혼 등등이 필요하지만  
 이 땅의 것들이 새해의 첫 단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첫 단추는 “위엿 것” 이 되어야 합니다.

위엿 것을 첫 단추로 삼으면 올해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뒷 순위의 가치를 첫 단추로 삼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위엿 것” 은 밀리고 밀려 끝내 꿰 자리도 없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새해에 입을 옷이 5개 구멍밖에 없는 옷이라고 합시다.  
 “위엿 것” 은 당신의 몇 번째 단추입니까?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 |   |                 |  |  |
|---|-----------------|--|--|
| <b>원로목사</b> 장영춘   | <b>담임목사</b> 김성국 |  |  |
| <b>부목사</b> 김도현/QPEM (347)450-7736   |                 |  |  |
| <b>전도목사</b>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V, Son/Rm (917)940-0596 천취위/CM (347)965-0343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                 |  |  |
| <b>전도사</b> 이양미/1교구 (516)717-8720 함미희/2교구 (917)359-2857 고부영/3교구 (917)423-5298 이소영/새가족(347)610-5399         |                 |  |  |
| 소유영/행정 (917)318-7030 최진식/ (646)887-7419   |                 |  |  |
| <b>교육전도사</b>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김정민(인턴) (914)648-9996 전진영/유치부 (267)476-2042      |                 |  |  |
| 평정은/유년부 (347)804-5366 이오스틴/초등부 (631)617-1339 김성은/중등부 (347)906-2003 차평화/고등부,EEEP(703)819-8785              |                 |  |  |
| 손요한/중국어교육부 (646)789-1118 <b>협력전도사</b> 윤원상(201)681-7899, 계화자(646)641-8944                                  |                 |  |  |
| <b>직원</b>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646)662-9015      |                 |  |  |
| <b>찬양대</b>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                 |  |  |
|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                 |  |  |
| 반주 / 송소영 반주 / 김정운 나윤주 반주 / 최미희 반주 / 이송은   |                 |  |  |



주후 2019년 1월 6일  
 제 45-1호

##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성국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김성국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550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김용생 장로 3부 / 이무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스가랴 4:6-10	사회자
찬양 CHOIR	사랑의 축복 사도신경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59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52 / 1, 4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주후 2019년 1월 6일

# 주일예배 (2,4부)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김성국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김수산 장로 4부 / 정길표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59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2부 / 스가랴 4:6-10 4부 / 사사기 13:21-14:4	사회자
찬양 CHOIR	주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2부 / <b>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b> 4부 / <b>약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b>	김성국 목사 박충은 목사
* 찬송 HYMN	552 / 1, 4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 새가족 환영회

2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 제직 수련회

1/11(금) 오후 8:00  
1/12(토) 오전 5:45, 오후 8:00

## 제직 시무 헌신 예배

1/13(주) 오후 3:45

## 수요 기도 예배

오후 8:00 (1/9/19)	사회: 남형욱 장로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김동은 집사
광고	사회자
특별찬양위원회 임명	김성국 목사
성경봉독	사회자

시편 110:3

말씀	김현수 목사
<b>기록의 옷을 입고</b>	
찬송	87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 교회소식

1월 전진의 달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 행사 및 모임

1/6(주) 선교회 월례회	1/11~13(금~주) 제직 수련회	1/13(주) 제직 시무 헌신 예배
1/15(화) 대심방 시작	1/17~19(목~토) 청년선교부 수련회	1/18(금) 구역 예배
1/30(수) 신학교 개강 부흥회	2/3(주) 선교회 월례회	2/6(수) 지도원 성경공부

### 알림

- 오늘 40,50,60대 QBC는 친교실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선교회 월례회는 QBC 마친후 오후 2:50~3:30까지입니다.
- 제직 수련회 안내 1)주제: 믿음의 세계 2) 강사: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 목사)  
3) 집회 시간: 1/11(금) 오후 8:00, 1/12(토) 오전 5:45, 오후 8:00, 1/13(주) 오후 3:45
- 2019 대심방을 1/15(화)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선교부 겨울 수련회 안내 1) 일시: 1/17~19(목~토) 2) 주제: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복된 삶  
3) 장소: HNA Palisades Premier Conference Center 4) 강사: 이건호 목사
- 가족기념 장학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의 소중한 기념일을 감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입구에 신청서가 붙어있습니다
- 중보기도실 운영 안내 새해부터 중보기도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주일: 지하 중보기도실 & 2층 중보기도실(211호) - 오전 8시~오후 5시  
\* 평일: 2층 중보기도실(211호) - 오전 7시~오후 7시 (그 외 시간은 분당)  
중보기도실은 담임목사 설교및 여러 사역, 교역자와 직분자, 예배와 교육, 교회부흥과 여러 기관, 다민족선교와 해외선교, 새성전 건축, 환우와 교우들의 긴급요청, 신학교와 신문사, 나라와 민족 등 여러 기도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중보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교우 또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대통령 자원 봉사상(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설명회 안내  
1) 일시: 1/13(주) 오후 3:00 2) 대상: Ainos 1 학부모
- 1/12(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사역 위원회 (다음주: 시온 찬양대)
- 가족기념 장학기금 한기덕 권사

### 새가족

박병진 (아브라함 1F1) 김성은 (안나 1Y2) 전동은 (여호수아 2F5)

### 금식기도

월 / Levi Tejada, Lisa Lee, Jane Choe	주 / David Lee, Joseph Hur
수 / Peter Kim, David Shin, Charles Hwang, Angela Cho	화 / Mary Choe, Lisa Lee, Tae Whang
금 / Grace Shum, Janis Gu	목 / Maggie Lee
	토 / Mary Cho, Maggie Lee, Sara Cho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아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본당

## 출석

1부 예배	280	러시아어 예배	35	영어부	36	중등부	53
2부 예배	389	청년 선교부	85	유아부	17	고등부	49
3부 예배	307	QBC	164	유치부	26	청년 대학부	27
4부 예배	163	새벽 예배	1304	중국어 교육부	25	교회 학교 예배	370
영어 예배	187	수요 기도 예배	167	유년부	70	주일 낮 장년 예배	1803
중국어 예배	357	신년하례예배	1066	초등부	67	주일 낮 총계	2173

## 1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김수산 장로

헌신기도	정길표 장로	임 정 장로	송동윤 장로	송동윤 장로
책임권사	민미숙 권사	이정숙 권사	이경애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동순	이정훈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장지숙 정민영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김미권 전용력 전인자 송명남	심원희 오성태 박수자 박석미 한원희 심화숙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루디아/여호수아 주일식사: 루디아(다음주: 한나)

##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 금주의 가정예배

2019년 1월 첫째 주

**제 75 문 :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답 :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 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43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7:17-43

2019년 첫 가정예배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시는 가정이 됩시다. 본문에 스테반은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모세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모세와 예수님이 다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 각각 민족의 구원자와 세상의 구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율법을 전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로서 성령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율법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과 같이,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도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저버리고 형식적인 경건에 빠져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다고 암시합니다. 올해 우리의 가정은 참 구주이신 예수님만 붙들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한 해가 됩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453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7:44-50

스테반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버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그곳에 율법이란 이름으로 종교적 행위는 번지르르하게 행해지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사고의 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스테반은 조상적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질책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버린 하나님은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 버리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잣대 아래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평생소원은 나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이심을 고백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337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7:51-60

스테반은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는 민중에 대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의 배경이 된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토록 당당함과 담대함이 그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힘이 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한 확신과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양식, 주택, 의복, 사교육비, 양육

문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 찬송가 33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8:1-8

스테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탄압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핍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예루살렘, 유다를 벗어나 사마리아와 아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을까요? 기본적으로 오순절 사건 때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수용함으로 전파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와 파괴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은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빌립을 통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교회의 핍박은 복음 전파의 영역 확대의 촉매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생명이 싹 틔우지 못하듯이, 우리의 삶도 썩어지는 고통이 없이는 또 다른 생명을 싹 틔우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음을 수용하였기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환난이 있었기에 세계로의 복음 전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9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8:9-13

시몬은 그가 행하는 능력(마술)으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이라고 칭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자인데 그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에 사마리아 백성들이 믿었고 시몬까지도 믿는 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기까지 합니다. 그도 능력자라고 칭함을 받는 자인데 자신의 능력과 비교하여 차원이 다를 수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놀라야 하는 것은 창조주 되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놀라야 할 일에는 놀라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별 볼 일 없는 일에는 관심과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 찬송가 38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8:14-24

마술사 시몬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로 통한 성령의 임재 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마술적 능력을 갖춘 시몬에게 있어서 주님의 복음과 능력은 신선함 이상의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그는 단순하게도 돈으로 살 수있을 것이라고 믿고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돈의 능력과 힘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버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사고를 일순간에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돈으로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알리고 계시하십니다. 단지 이점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를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오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